

제목: “늘 준비 된 하나님의 사람“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16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언제든 사용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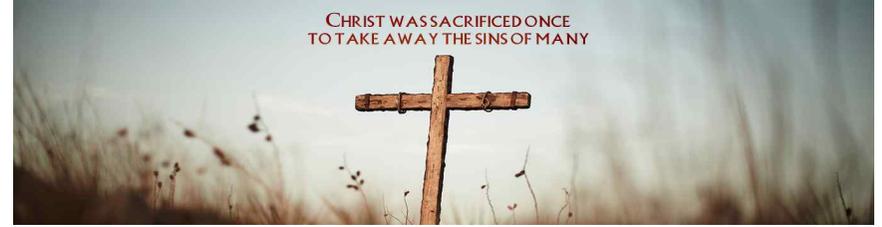
1. **경건** 하라고 합니다. (8절)
2. **은사**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14절)
3. **전심전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15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4장 6-16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4: 6-16 신약 339 페이지 Presider
- 말씀 “늘 준비 된 하나님의 사람“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헛되지 않은 인생)

새벽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헛된 것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 한다. 아니 전부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 주 며칠 동안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전에 젊을 때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세상으로 독립해 나갔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아내뿐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사역들을 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내 열심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어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을 때와 같은 힘도 추진력도 없는 것을 느낀다. 아무래도 몸이 이전과 다르고 생각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이 탓인가? 아무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그 때가 지금이구나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사는 것이 헛된다고 다시 확인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비전이 일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일하며 먹고 사는 것 안에 기쁨을 주셔서 낙을 누리게 하신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아닌 것을 따라 비전을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기는 것은 본업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도구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답게 그 먹고 마시며 인생의 낙을 누리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이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특별한 지름길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열심히 살던 것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천국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영원히 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갈 것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뚫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다.

헛된 세상을 살면서 고민 가운데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세상에서 부르실 그 때까지 은혜의 은혜를 타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집사님과 최운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8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친교

다음 주일 친교는 교회에서 예배 한 후 Mizumi Buffet 에서 합니다.

13500 SW Pacific Hwy #17, Tigard, OR 97223

6. 7월 행사

목자 훈련	8월 20일 (췌)	예배당
목장 모임	8월 20일 주중	각 목장에서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